

- 주요 뉴스: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 경고 및 폴란드에 미군 추가 배치
 -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 61.7로 예상치(67.0) 크게 하회 및 13년만 최저
 - 미국 통화정책 전망, 1월 물가 급등 충격으로 3월 50bp 금리인상 기대 강화
 - 영국 '21.4분기 GDP, 전분기 대비 1.0% 증가. 연간 성장률은 1941년 이후 최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우려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
 - 주가 하락[-1.9%],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소비심리 위축, 러-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7% 하락, 엔화 가치는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에 따른 risk-off로 하락
독일은 미국 통화긴축 우려 속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00.75원, 1.3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2/11일	2/10일	전일대비			2/11일	2/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18.6	4,504.1	-1.90%	국채 금리 10y	미국	1.94%	2.03%	-9bp
	유럽	469.57	472.35	-0.59%		독일	0.30%	0.28%	2bp
	중국	3,462.9	3,485.9	-0.66%	CDS 5y	한국	27bp	27bp	0bp
	일본	휴장	28,488	-		중국	54bp	53bp	1bp
	한국	2,747.7	2,771.9	-0.87%	위험 지표	EMBI+	-	400	-
환율	달러지수	96.03	95.55	0.50%		VIX	27.36	23.91	14.43%
	유로화	1.1350	1.1482	-0.68%		WTI유	93.10	89.88	3.58%
	엔화	115.42	116.01	0.51%	원자재	구리	450.6	466.0	-3.29%
	위안화	6.3546	6.3541	-0.01%		금	1,858.8	1,826.9	1.75%
	원화	1,198.5	1,196.5	-0.1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 경고 및 폴란드에 미군 추가 배치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병력 증강으로 침공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올림픽 종료 이전, 이르면 내주 공습이 나타날 위험 경고.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들에 48시간 이내 대피할 것을 재차 촉구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폴란드에 미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82공수사단 병력을 3천명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 한편,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가질 예정
- 미국, 네덜란드 등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자국민들에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이미 권고한 가운데 영국, 노르웨이 등도 잇따라 자국민들에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안보가 우려된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 61.7로 예상치(67.0) 크게 하회 및 13년만 최저

-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1.7을 기록하면서 전월 확정치(67.2)와 예상치(67.0)를 큰 폭 하회. 리처드 커틴 미시건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심리는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 부정적 경제 전망 등으로 '11.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
- 다만 단기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초과 저축과 강한 노동시장 회복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시각도 제기. Moody's는 소비심리 지표의 상대적 부진 지속은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하며 반등 가능성에 주목

■ 미국 통화정책 전망, 1월 물가 급등 충격으로 3월 50bp 금리인상 기대 강화

- 전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 급등 충격으로 연준의 정책 대응 지연 불안이 확산되는 한편 3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50bp 인상하고 연말까지 1.75%~2.00%로 올릴 것이라 전망이 확대. Deutsche Bank, BofA, Citi 등 다수 기관들은 50bp 인상을 전망 중
-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인상 폭을 키우는 대신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B/S 축소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3월 25bp 인상 전망을 고수. 3월 FOMC 회의 전까지 주요 물가 및 고용 지표 발표가 남아 있어 연준이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평가도 존재

■ 영국 `21.4분기 GDP, 전분기 대비 1.0% 증가. 연간 성장률은 1941년 이후 최고

- 영국 `2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12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서비스 업종 타격에도 불구하고 1.0% 기록. 영국 통계청(ON)의 대런 모건 이코노미스트는 `21.12월 GDP(-0.2%)는 코로나19 이전인 `20.2월과 비슷하며 4분기는 `19.4분기보다 소폭 낮다고 발언
- 연간으로는 `21년에 7.5% 성장하면서 `20년 -9.4%에서 큰 폭 반등.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이며,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경기회복세가 빠른 편. 영국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근시일 내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 점증

■ IEA, `22년 석유 수요 전망치 상향 및 유가 상승 전망

- IEA는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22년 석유 전망을 기존 전망치인 9,970만 배럴에서 1억 60만 배럴로 상향. OPEC+의 석유 생산량이 생산 목표를 만성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이 유가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

■ 러시아 중앙은행, 12월에 이어 정책금리 100bp 인상 및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8.5%에서 9.5%로 100bp 인상. 이는 지난 12월 100bp 인상에 이은 큰 폭의 추가 인상으로, 코로나19 충격 회복 과정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결정.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2/1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61.7, 1월(67.2), 예상치(67.0)
- 영국 `21.4분기 GDP(전분기비): 1.0%, 3분기(1.1%), 예상치(1.1%)
- 영국 `21.12월 산업생산(전월비): 0.3%, 11월(1.0%), 예상치(0.1%)
- 영국 `21.12월 제조업생산(전월비): 0.2%, 11월(1.1%), 예상치(0.2%)
- 독일 1월 소비자물가(확정치, 전년동월비): 4.9%, 12월(4.9%), 잠정치(4.9%)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